



## 동아일보 창간 102주년... “불편부당 시시비비 공선사후 창간 정신 지켜야”



우리 민족 나아갈 길 용기 있게 전한 동아 102년...진실 전하는 탁월한 콘텐츠 계속 될 것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CC큐브에서 열린 102주년 창간기념식에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가운데)과 장기근속자, 신입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깊어지고,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수록 동아는 ‘불편부당(不偏不黨)’ ‘시시비비(是是非非)’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창간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4월 1일 동아일보 102주년 창간 기념식에서 “(동아 일보는)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오직 사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김 사장은 동아의 저널리즘 가치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 창간 정신에 현재 비취야

김 사장은 이날 “동아의 창간 정신은 우리에게 등불”, “동아의 창간 정신에 현재를 비취보자”며 창간 정신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일제시대 청년신문 동아 일보는 기사작성, 배포중단, 정간, 폐간 등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용기 있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하게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그리는데 동아가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협업과 혁신도 이날 기념사의 주요 키워드였다. 김 사장은 “(동아미디어그룹 내에서) 더 붙어 함께 우리의 가치를 높이자”는 노력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며 “전통적인 신뢰자산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고 아날로그에 디지털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가 보다 큰 시장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 공개될 새로운 콘텐츠 제작시스템과 관련해 “도구의 변화와 함께 젊은 생각과 열린 협업을 통해 뉴스룸과 비즈니스의 혁신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차 보상체계 개편 밝혀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채널A 10주년 기념식에서 1차 보상체계 개편을 공개했

던 것에 이어 이날 2차 보상체계 개편도 밝혔다. 김 사장은 “그동안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준 직원들과 맡고 있는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직원들에 대한 기본 연봉을 인상한다”며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고 취재비 등을 증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 맞춤 자녀 돌봄 제도인 ‘금쪽 사랑 휴가’와 야간근무를 하는 직책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 계획도 밝혔다.

한편 102주년 창간 기념식은 ‘독립의 꽃’ ‘민주화의 꽃’을 피운 동아일보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봄과 꽃’을 테마로 치러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에는 올해도 최소

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장기근속자 3명과 동아일보의 또 다른 100년을 이끌어갈 신입사원 6명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선 장기근속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올해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는 총 127명으로 정연욱 논설위원, 이준철 AD본부 광고총괄기획팀장, 전주영 편집국 정치부 기자가 각 근속 30년, 20년, 10년을 대표해 공로패 및 표창장, 금반지 등을 받았다. 또 참석자 전원에게 <강철부대> 콜라보 제품인 ‘아미나이프’를 증정했다.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장기근속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표창장과 기념품(금반지 등)을 전달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준일

## 동아일보 채널A 2차 보상체계 개편안 공개

10년차 이하 사원에 집중 1차에 이어, 2차에서는 고연차 사원에 방점

#1. 동아일보 편집국 A 사원은 불과 함께 찾아온 예상치 못한 연봉 인상에 모처럼 기분을 내고 있다. 우수성과자로 분류돼 4월부터 기본 연봉이 1170만 원 인상됐기 때문. 여기에 활동장려금 360만 원이 신설되면서 올해 총 연봉은 16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이달부터는 야근 직책자를 위해 도입된 비즈니스 택시로 집에 갈 때도 비용 걱정 없이 편안히 귀가한다.

#2. 채널A B 사원은 이달 단번에 기본

연봉이 2000만 원 올랐다. 최근 보여 온 우수한 성과에 대해 회사가 대폭 보상을 늘려 화답한 것. 또 다른 채널A 사원 C는 기본연봉, 직책수당, 활동장려금이 모두 늘면서 올 한해 연봉이 총 16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02주년을 맞아 ‘2차 보상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데스크, 현장 팀장 등 직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취재

기자들의 수당 및 모든 직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늘린 게 골자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준 사원들에 대해서는 기본 연봉도 크게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채널A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1차 보상체계 개편이 10년차 이하 사원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했다면, 4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개편은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시니어 사원들에 집중했다. 앞서 1차 보상체계 개편은 저연차들의 특성을 고려

해 성과보다는 입사 연차를 기준으로 기본 연봉을 조정했다. 반면, 이번 2차 개편은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을 크게 뒀다.

10년차를 넘긴 사원들은 각자의 능력과 헌신을 발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해서다. 기본연봉 인상폭은 1차 개편보다 훨씬 컸다.

동아일보는 200만~1170만 원, 채널A는 200만~2000만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졌다. 이 같은 차등보상 외에도 이번 개편

에서는 모든 기자의 취재수당이 인상됐고, 동시에 현장팀장 및 데스크 등 직책자를 위한 활동장려금 제도도 신설됐다. 또 모바일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사원으로 확장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이날 창간기념식에서 “지난해 채널A 개국 10주년 때 동아 가족에게 다짐했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 우수성과자 기본연봉 인상...자녀 양육 지원 '금쪽사랑휴가'도 신설

## 취재장려금, 활동장려금 등 확대...탁월한 콘텐츠 생산 독려

4월 1일 발표한 '2차 보상체계 개편안'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보상 철학에 기반해 마련됐다. 특히 고연차 사원들이 기본연봉, 수당 등 정량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

### 기본연봉 최대 2000만 원 인상

2차 개편에서 기본연봉이 오른 사원들은 동아일보와 채널A 소속 101명이다. 이들은 높은 성과와 역량을 보였거나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과거 기준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었던 사원 등이다.

대상자 선발은 각 국·실·본부·센터의 평가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37명에게 200만~1170만 원을, 채널A는 64명에게 200만~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인상분은 당장 이달 4월 급여부터 반영한다.

### 취재수당 모두 인상, 직책수당 신설도

취재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취재비 지급도 확대했다. 먼저 기자들이 더 활발하게 취재 활동을 하고 탁월한 콘텐츠 생산에 전념하길 바라는 뜻을 담아 취재비의 이름을

'취재장려금'으로 바꾸고 부서별 액수를 모두 올렸다. 새롭게 마련된 취재장려금 제도에 따라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전보다 연간 690만 원, 기자는 연간 60만~300만 원이 오르게 됐다. 채널A는 연 기준 120만~48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직책자와 현장팀장 등 시니어 기자들을 위한 '활동장려금'도 신설했다. 직책 차장 이상 데스크들은 연간 360만 원, 현장팀장들은 연간 240만 원을 4월부터 매월 10일 현금으로 받는다. 이와 별개로 채널A는 직책수당도 올렸다. 직책자의 책무와 업무량을 반영해 기존보다 연 240만~480만 원 높은 직책수당 체계를 만들었다.

한편, CD직군은 직무수당 지급 기준을 PD직군과 동일하게 맞췄다. 기획·프로듀싱·디렉팅 등 실제 직무를 따져 수당을 지급기로 한 것. 인상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문 기술직 사원들의 처우 강화를 위해 법정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등)에게는 연 120만~240만 원의 책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 규모도 커졌다. 기존에는 일부 직군과 직급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4월부터는 '모바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전 사원에게 월 7만 원씩 연간 84만 원을 지급한다.

### 야근 데스크, 택시로 집 앞까지 안전하게

장시간 내근이 불가피한 신문 제작부서 직책자들을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 택시 귀가 지원이다. 직책자들이 야근 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100% 회사 비용으로 택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기로 한 것. 자차 운전을 선호하는 직책자들은 택시 이용 대신 주차장 비용 전액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원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쪽사랑 휴가'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사원들이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필요시 유급으로 일주일 휴가를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편집국의 한 사원은 "우리 회사에서는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을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다"며 "금쪽사랑 휴가" 역시 가정친화적 회사 문화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준일

## 동아일보

구분	내용
기본연봉 인상	- 국·실·본부 평가와 의견 반영 37명 - 200만~1170만 원 인상
취재장려금	- 논설위원 연 690만 원 추가 인상 - 기자 연 60만~300만 원 추가 인상
교통지원	- 신문제작부서 직책자 야근 시 모빌리티 서비스 혹은 주차장 이용 지원
책임수당	- 법정관리책임자 연 120만~240만 원 신설 지급

## 채널A

구분	내용
기본연봉 인상	- 본부·실·센터 평가와 의견 반영 64명 - 200만~2000만 원 인상
직책수당	- 연 240만~480만 원 추가 인상
취재장려금	- 연 120만~480만 원 추가 인상
직무수당	- 안전·보건 관리자 연 240만 원 신설 지급 - CD 직군, PD직군과 동일하게 기획·프로듀싱·디렉팅 직무 반영해 20만~80만 원 지급

## 동아일보·채널A 공동

구분	내용
활동장려금	- 직책 차장 이상 데스크 연 360만 원 지급 - 현장팀장 연 240만 원 지급
모바일지원금	- 전 사원에게 연 84만 원(월 7만 원) 지급
금쪽사랑휴가	- 어린이집 입소, 초등학교 입학기, 사춘기 자녀 돌봄 등 필요시 일주일간 유급휴가

# 동아미디어그룹 청년들의 고군분투 수습기

## 정확한 사실 보도의 중요성·콘텐츠 향한 열정 배워

최미송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에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사건은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진심의 힘을 느낀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쏟아졌습니다. 최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근처를 서성이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추측성 보도로 유족이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기자는 진심이 담긴 한 마디. 점주는 한참동안 고민하다가 고인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보여줬습니다. 최 기자는 진실을 보도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최 기자는 앞으로는 진심의 힘을 믿고 취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참담한 재난의 모습을 처음 만났던 김민환 보도본부 기자. 떨어지거나 외벽, 임시 거처 속 실종자 가족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선배로부터 기자가 해야 하는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서 비롯됐을 현장의 참혹함을 시청자에게 어떻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볼 것', '단 한 마디의 취재에도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할 것' 등 기본적인 취재 원칙 말입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면수습 뒤 사령장을 받은 편집국 신입기자들, 제작본부 신입PD들, 보도본부 신입기자들, 도시어부 촬영장에서 떡볶이 매점을 연 수습시절 신입PD

사고 현장에서 침착하게 현장 중계를 하는 기자들을 보며 어떤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김 기자도 이제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라는 바이라인이 부끄럽지 않도록 김 기자는 오늘도 현장에서 기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습PD로 입사한지 나흘째, 장재민

PD는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투잡'이 아니라 <도시어부3> 촬영 중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을 위해 매점을 열고 떡볶이를 만드는 상황에 직접 투입된 것입니다. 트렌디한 기획력, 날카로운 편집력, 카리스마 연출력을 꿈꾸며 입사했는데...

상상 속 멋있는 PD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정 PD는 웃음 하나만은 확실하게 안겨줄 수 있는 예능 PD가 꿈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



을 줄 수 있다면 떡볶이 100인 분도 거뜬했습니다. "아저씨 장사한 지 몇 년 되셨어요?"라는 출연자의 즉석 질문에 "부부끼리 장사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빛이 많아가지고..."라며 씩씩하지만 능청스러운 애드리브도 해냈습니다.

웃음을 위한 모든 제작진들의 수고로움을 아는 것, 그것이 장재민 PD가 처음 배운 PD로서의 일이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처럼 시청자에게 감동의 눈물

과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 내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신입 기자·PD 22명은 지난 3월 수습 기간을 마쳤습니다. 꽃피는 봄처럼 동아미디어그룹에서 꿈을 활짝 펼쳐 나가겠습니다.

편집국 사회부 최미송  
보도본부 사회1부 김민환  
제작본부 2CP 장재민

# 콘텐츠유니버스 구축하는 <강철부대2>

‘흥미진진’ 본방송과 ‘개성만점’ 디지털콘텐츠의 강력한 시너지

사선에 선 HID 이도규 대원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자 실탄이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뚫는다. 어두컴컴한 밤 외출타기 도중 707 ‘에이스’ 이주용 팀장이 추락한다. 국내 최초 실탄사격, 한 차원 더 강력해진 미션, 예측 불가 승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강철부대>가 방송과 디지털을 넘나들며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강철부대2>는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제공하는 3월 5주차 비드라마 TV 검색반응 2위, 비드라마 TV 화제성 6위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반응이 뜨겁다.

3월 29일 방송된 6회는 30대 여성 시청률이 3.562%(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로 <강철부대2> 역대 최고는 물론 동시간대 예능 최고를 기록했다. <강철부대2>의 화제몰이는 유튜브와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넘나들며 콘텐츠 유니버스를 구축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본 방송이 끝난 직후 유튜브로 공개되는 <박갈량의 강철부대2 Re-MASTER>가 대표적이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콜라팀이 제작하고 박근이 진행하는 이 콘텐츠는 본 방송의 여운에 빠져 있는 시청자들을 흡입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눈 내리는 참호격투에서 특수부대원들의 자존심 싸



(위) <강철부대2> HID 이도규 대원의 사격 장면과 (아래 왼쪽부터) 한층 커진 스케일의 미션, 디지털 콘텐츠 <박갈량의 강철부대2 Re-Master>와 <짬밥특공대>



움을 다룬 1회는 조회수가 91만 회에 달했다. 7화 방송 이후 유튜브에 공개된 <원가 잘못된 강철부대 연합전> 편 역시 닷새 만에 조회수 47만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들 콘텐츠에는 <강철부대1>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707 이진봉이 매회 출연해 입담을 과시하며 지원사격 중이다.

제작진이 직접 대원들의 일상을 담은 <강철수양록>도 최고 조회수가 19만 회를 넘었다. 특히 대원들의 캠핑 ‘먹방’을 다룬 <짬밥특공대>는 본방에서 미처 담지 못한 대원들의 예능감을 200% 담아내며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OTT ‘시즌’에서는 미방영분 영상 <강철부대2: 비하인드>가 독점 공개 중이다.

제작진은 “<강철부대2>를 향한 ‘밀리터리 덕후’ 마니아들의 열기가 뜨겁다”며 “미션 스케일이 미쳤다”, “우리 군인들 너무 자랑스럽다”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철부대2>는 시즌 종료 후 스텝오프 방영도 계획 중이다. 시즌 1, 2를 통틀어 가장 인기있는 출연자들이 나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안겨 줄 예정이다.

제작본부 2CP 이원웅

## 선을 넘는 기자들

### ‘항공업계 인플루언서’ 자리잡은 변종국 기자

“<뺨다뺨다 변비행>으로 규칙을 깨 볼게요”

아침부터 동아미디어센터 4층 사진부 스튜디오에서 높은 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변종국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1부 기자.

디지털 콘텐츠 <뺨다뺨다 변비행>이하 ‘변비행’ 녹화를 앞두고 그는 카메라 3대 앞에서 리허설 중이었다. 무선 마이크 스스로 능숙하게 차고, 서류 문치를 쓱 읽은 뒤 한 마디를 외치며 녹화를 시작했다.

“<녹화> 갈게요!”

<변비행>은 구독자 2만 명을 보유한 항공 전문 디지털 콘텐츠. 2019년 동아미디어그룹 담지(DAMG) 크리에이터 프로젝트에 지원했는데 아이디어가 채택돼 문을 열었다. 4년간 항공 업계에 취재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을 술자리 대화(?) 마냥 편안하게 전달한다.

“<변비행>은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디지털 콘텐츠 시청자들만이 기대하는 포맷이 있죠. 작가도, 원고도 없어요. 있었다면 수고는 덜었지만 100% 망했을 걸요.”

그는 어느덧 항공업계 ‘인플루언서’가 됐다.

“저를 알아보는 경우는 꽤 있어요. 공항에 가면 누군가 꼭 ‘저 변비행 구독자예요’라고 먼저 인사해요. 항공업계에서도 영상을 보고 ‘어려운 주제를 잘 살렸다’며 반응이 많이 오죠.”

항공 업계 관계자가 <변비행>에 직접



편집국 산업1부 변종국 기자

출연하기도 한다. 현직 파일럿과 함께한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 영상은 조회수 37만 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 기자는 신문과 온라인 기사에서 담지 못한 뒷이야기를 <변비행>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형식과 깊이로 소식을 전달한다. 본업과 ‘부캐’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변비행>은 ‘하늘을 난다(飛行)’가 아니고 사실 ‘규칙을 깬다(非行)’라는 의미예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신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용 다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변비행>은 점차 ‘모빌리티’를 주제로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기자 등 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다루고 싶어요. 2만 구독자 기념 영상으로 행글라이더나 롤러코스터를 타며 촬영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변 기자는 우리 모두 과감하게 ‘선을 넘자’고 말했다.

“취재한 내용을 다양한 경로로 펼쳐내는 건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 신문, 방송, 디지털콘텐츠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모든 플랫폼을 활용해 마음껏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 쏟아지는 채널A IP 콜라보

생활용품·유아용품 등 출시하며 시장 공략



<강철부대2> 콜라보 캐릭터 3종(왼쪽)과 <금쪽같은 내새끼> 콜라보 제품 ‘금쪽이 누리잠 입벌림 방지밴드’

채널A의 인기 IP를 활용한 콜라보 제품들이 또 한번 쏟아진다.

<강철부대2>는 최근 떠오르는 라이프스타일용품 브랜드인 ‘뚜까따’와 함께 총 3종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특전사, SDT, 707, HID가 키우는 ‘짬타이거’, SSU, UDT, 해병대처럼 두려움 없는 ‘카상어’, SART 입대 지원자로 변신한 ‘강뽕새’가 주인공이다.

이를 이용해 4월 말에는 텀블벅에서 <강철부대2>와 뚜까따 콜라보를 위한 펀딩 프로젝트도 연다. 티셔츠 2종, 열쇠고리, 태블릿PC 파우치, 스티커, 엽서, 소주잔 세트 등 다채로운 제품이 펀딩에 나설 예정이다.

<금쪽같은 내새끼>도 습윤밴드 전문제조업체 누리메디스와 콜라보를

통해 ‘금쪽이 누리잠 입벌림 방지밴드’를 만들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쪽이 쿠션’, ‘금쪽핫도그’에 이은 세 번째 IP콜라보 제품이다.

제품 관계자는 “연약한 아이들 피부에 직접 붙이는 제품인 만큼 의료용 프리미엄 원단으로 제작했다”며 “접착력이 뛰어나면서도 보습용 알로에베라를 사용해 오래 붙여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이 제품은 4월 중순부터 오티티닷컴과 쿠팡,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팀 유영재

봄날의 꽃들이 팡팡 꽃망울을 터뜨리듯, 2022년 동아미디어그룹에서도 각종 수상 축포가 터지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채널A B&C 등 곳곳에서 탁월한 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잇단 수상 낭보가 전해졌다.

### 동아일보 법조팀 대한민국 언론대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동아일보 법조팀이 '한국판 풀리처상'의 신문부문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YWS FOUNDATION)'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황형준 팀장, 배석준 유원모 고도에 박상준 김태성 기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추적 보도>를 선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언론대상은 한국판 풀리처상을 목표로 지난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올해 첫 수상자를 냈다. 국내 주요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간 부들이 주축이 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도해 만든 상이다. 본보 법조팀은 지난해 9월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재직 △정영학 녹취록 주요 내용 △화천대유를 둘러싼 분양대행업체-토목건설업체 간 수습역 원대 자금 거래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 입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

사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 특종보도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검찰 수사를 이끌고 관련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사실상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신했던 점도 인정받았다. 올해 진행된 첫 공모에는 신문(통신 포함) 부문 25건, 방송부문 8건, 논평부문 7건 등 총 40편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편집국 사회부 황형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추적보도'로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형준 팀장, 박상준, 김태성, 고도에, 유원모, 배석준 기자.



### <환생>팀 대통령 표창

지난해 <환생> 시리즈를 보도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2기팀(팀장 임우선 팀원 곽도영 김은지 이윤태 이생돌)이 4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0회 보건일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환생>팀은 한국 언론 최초로 100일간 장기 기증의 전 과정을 심층 취재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생>팀은 보도 이후 관훈언론상 저널리즘 혁신부문, 한국디지털저널리즘 어워드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대내 외의 권위 있는 상과 표창을 다수 수상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임우선

### 채널A B&C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관왕

채널A B&C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2'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winner)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로서 세계 3대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심사 위원장이다. 올해는 전 세계 29개국에서 출품된 1830개의 작품이 출품해 경합을 벌였다. 방송 프로그램 디자인 중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한 <강철부대> <프렌즈> 디자인은 각 프로그램의 형상적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이고 독창적인 비주얼 브랜딩으로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자상 팀장(가운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종범 과장, 김수민 매니저, 박유미 파트장, 김미리 과장, 김신규 매니저

채널A B&C 비주얼브랜딩1팀 유자상

### <팩트맨>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



(왼쪽부터)<팩트맨>팀의 박지연 작가(서상희 기자 황진선PD)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 팩트체크'를 연속 보도한 채널A <뉴스A>의 사실 검증 코너 <팩트맨>(서상희 기자 황진선 PD 박지연 작가)이 제5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팩트체크대상은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한 해 동안 사회적 이슈를 정밀하게 검증·보도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사위원장인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팩트맨이 허위정보의 사실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며 "치밀하고 독자적인 취재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보도본부 사회2부 서상희

### <지구는 엄마다> KBCSD 언론상

채널A 창사 10주년 프라임다큐 2부작 <지구는 엄마다>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 TV 영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KBCSD 언론상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한다. <지구는 엄마다>는 지구도 1년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전통 '네피'를 지켜온 발리인들의 이야기이다. 주최 측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발리인의 철학을 통해 현재 지구환경 문제와 미래



<지구는 엄마다>를 기획한 윤정화 편성전략본부장

를 심도있게 고찰했다"고 평가했다.

편성전략본부 윤정화

#### New face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 ③ 최종 직장



강흥민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 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② 7080 추억의 명곡 듣기, 포켓몬 빵 스티커 모으기, 시골에서 힐링하기, 해외축구 관람하기 등 관심사가 많습니다.



김채현 / 채널A 편성전략본부

- ① 함께하면 행복한 동료이자 대체불가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었습니다.
- ② 저는 주변 사람들을 웃겨야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한 건해서 힘낼 수 있을지 항상 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준영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처음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던 때의 간절함을 잊지 않고, 매순간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채널A만의 인사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 ② 최근 필름 카메라에 관심이 생겨 좋은 장소에서 추억할만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광화문 광장이 개장하면 퇴근 후의 여유로움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 ③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임도현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인턴기간과 최종면접을 준비하면서 인사 업무에 대해 많은 고민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널A 구성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지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조직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저는 IT 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입사선물로 갖고 싶었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태블릿 구매해서 채널A 콘텐츠 정주행하겠습니다!
- ③ 키움에스저축은행

